

헤이안 시대의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컬러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lors of Official and Private Costumes in Heian Period of Japan

이재정* · 옥지영 · 윤을요

Lee, Jae Jung* · Ok, Ji Young · Yun, Eul Yo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퓨전 디자인학과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Master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lors featured in the ceremonial dresses of court lady in the Heian Period (794 to 1185).

Therefore, the study chose the Heian Period as the object of analysis, since the people in that period expressed flamboyance and variety most by wearing kimonos many folds. In particular, the study was focused on the dresses of court lady, which showed the most colorful features in the period.

For the aforementioned purpose, the study first classified the costumes by the official dresses and private dresses and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m, which drew out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red was found to be a common color in both the official and private dresses, which indicates that red and purple were loved much by the noble people for its elegance and concern.

Second, a distribution chart of colors revealed some differences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dresses. While official dresses tended to employ brilliant colors with warm feelings, private dresses tended to use gloomy colors with cold feelings. It is also found that the private dresses used a variety of new colors and tried to make a freer arrangement of colors than the official dresses.

Third, similar ways of color arrangement were found both in the official and private dresses, which showed little difference of gradation. In the same vein, the purplish blue used in the private dress was employed for sleeves, giving a rhythmical sense of color to the monotonousness of the red.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chart of the colors of the official and private dresses in the Heian Period, the study c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eremonial dress and extraction of colors.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could derive the common and different features of the official and private dresses and define several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 colors featured in the ceremonial dresses of court lady in the Heian Period.

Key Words : Heian, Official and Private Costumes, Color of Ceremonial Costumes

접수일: 2007년 10월 4일

교신처: 이재정, E-mail: jjl@kookmin.ac.kr

* 이 논문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의하여 사업수행중인 '신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임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복은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의식의 표현으로 그 시대 사회문화의 단면을 표출하는 적합한 수단으로서 다른 예술과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그 시대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이러한 의복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는 형태, 컬러, 소재, 문양, 장신구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컬러는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 요소로써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적 성향을 전달하는 시각적 매체이다.

컬러는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서 상징, 인지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동양권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색채관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공유하는 부분이 크지만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세계 패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현대 패션의 예를 살펴보면 그들은 전통을 바탕으로 형태, 디테일뿐만 아니라 컬러에서도 그 이미지를 찾아내어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원류를 찾아보면 헤이안 시대에 일본의 독특한 기후의 영향으로 ‘감싸는 형태’의 기모노를 몇 개씩 겹쳐 입는 방식이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일본 사람들 역시 다양한 색감과 색상간의 조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헤이안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본복식은 점차적으로 당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역사에 있어서 복식의 화려함과 귀족적인 면이 공존하는 시대로서 기모노의 안감과 겉감의 컬러조화방법이 발달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이안 시대에 색상의 조화를 꾀했던 귀족중심의 공가여방들의 복식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비교·분석하고 컬러 분포도를 바탕으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어낸 794년부터 1185년까지의 헤이안 시대를 시대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기모노를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으로 다양한 색채관을 분석할 수 있는 공가여방의 예장을 고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공가여방의 예장의 특징 및 유래와 헤이안 시대의 색채관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입혀졌던 공가여방의 예장 4벌을 중심으로 컬러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헤이안 시대에 나타난 두드러진 컬러효과인 그라데이션과 배색의 효과를 살펴보고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컬러분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시대별 대표 복식과 컬러 분류¹⁾

시대구분	문화적 배경	대표복식의 특징	컬러
조몬식	신체의 보호와 행동의 편의	사슴의 모피를 상반신옷으로 하고 섬유로 꼬아 만든 끈을 연결한 형태	자연의 색
야요이	농경, 금속기구, 방직 등 새로운 문화의 등장	상의는 시의 고소데 위에 붉은 바탕의 줄무늬 직물로 된 한나라식 오소데를 착용, 시즈리의 띠를 맴. 나의 능문이 새겨진 모를 입고 마포 바탕에 단토로 문양을 넣은 관두의를 입은 후 멜빵을 걸침.	황색, 주홍색, 빛바랜 옅은 황색, 갈색, 흰색, 옅은 연두색
고훈	대륙에서 실증된 고도의 문물 바다로 유입	상의, 모에 띠를 매는 새로운 양식의 의복형태	청색, 황색, 흑색, 자색
아쓰카	수의 복제를 도입하여 관위 12계의 제정	좁은 소매, 옷칠한 나무 신을 신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나라	요로 율려의 반포로 복제의 대강이 확립	상의인 오소데로 길과 연결된 소매는 가늘며 소매 끝으로 곡선이 되어있음	심자, 천자, 심비, 천비, 심록, 천록, 심표, 천표상, 목의, 심록, 황색
헤이안	당풍문화의 영향	여러 개의 옷을 겹쳐 입는 형태	심자, 중자, 멸자, 심비, 흑포
가마쿠라	교통의 원활 여행자가 많아짐	우치키 등을 짧게 묶어서 입는 쓰보소조쿠의 형태	적색, 옅은 포도색, 황색 빛의 연두색,
무로마치	오닌의 대란 - 큰 변화의 시대	공가, 무가 부인의 외출 시에 고소데(가즈키)를 덮어씀	빛바랜 하늘색, 옅은 갈색, 적색, 흑색
아쓰치·모모야마	도요토미히데요시 출현	고소데를 걸쳐입는 양식	다양한 수를 사용한 주홍빛
에도	구무가 계급 물락	화려한 고소데를 착용	다양한수를 놓은 짙은 적색

II. 일본복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가여방 예장의 유래

일본열도는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등으로 삼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재해를 당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일본의 주택은 고온 다습한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방적인 주택 구조를 갖는 여름형 주택을 기본

1) 정통아풍, 이자연역(2004), 일본 여성복식사, 경춘사, p. 12-p. 105.

<표 2>시대별 색채관의 배경⁶⁾

시대	정신사상	미적이념	미의식	색채관
야요이-나라	물활론적 신앙	코토	주술적인 의미의 미의식	붉은색 선호의 색채관
	불교, 음양오행	미야비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한 승배를 위한 꾸밈의 미의식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원색적인 색채관
헤이안	불교	미야비 -아와레, 다케다카시	귀족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련되고 우아한 미의식	중색조와 은회색을 중심으로 한 우아한 색채관
가마쿠라, 무로마치, 모모야마	불교(선종), 도가	유현 -와비, 사비	고담과 정적을 지향하는 미의식	낡은 듯 퇴색한 무채색의 색채관
		다케다카시 -과시의 미	무인계층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과도한 꾸밈의 미의식	금색이 주조를 이루는 색채관
에도	신 불교, 유교	이키	유곽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적이고 관능적인 미의식	유너나 배우를 중심으로 한 유행색의 색채관

으로 하여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창문을 많이 만들고 지붕을 높게 만들어 통풍성에 주안을 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부적합한 주택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 전통적 좌식생활을 하는 일본 공가여방들에게 있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방식이 발전된 것이다.

또한 예장의 유래를 당풍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헤이안 시대의 사회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헤이안 시대의 전기에는 당풍문화의 색채가 강했으나, 후기에는 일본 내부의 독자적 문화를 이룩할 만한 축적된 힘에 의하여 국풍화(國風化)가 이루어져서 일본 독자의 문화를 형성하였다²⁾. 그로 인해 당시의 상층 귀족들은 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풍부한 재력과 특권으로 궁정의 연중행사, 연회 등 사치한 생활³⁾과 사냥 및 자연을 감상하는 등 매우 유희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복식은 아름답게 치장되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고, 자연히 형식이나 색채미를 강조한 의례복이 발달⁴⁾하게 되었다.

2. 헤이안 시대 색채관

일본의 종교와 정신사상은 다원적이어서 한 가지 정신사상이 주도적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여러 사상이 복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신사상을 바탕으로 일본은 고대부터 근세까

2) 진흥섭 역, 久野健외 2人공저 (1978), ‘日本美術史’, 열화당, p. 45.

3) 김미자(1991,10), ‘日本の 團領에 대한 研究’, 한국복식학회지 17호, p. 78.

4) 김미자, 위의 논문, p. 78.

지의 문학을 통해 예술문화에 나타난 미적 이념이 특색을 가지고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⁵⁾

이 시대는 귀족중심의 문화를 꽃피우는 시대로 나라시대부터 내려온 귀족적인 취향을 상징하는 ‘미야비⁷⁾’의 미적 개념이 그대로 계승되어 ‘아와레⁸⁾’의 미적 개념으로 나타난다⁹⁾.

헤이안 시대에는 당에 사신과견을 중지한 결과 외국과의 정식교류가 단절되어 일본적 문화가 생성된다. 따라서 헤이안 시대는 귀족중심의 화려하고 우아한 문화로 대표되는 시기로서, 그들의 생활은 정적이며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다.

나라시대에 이은 미야비적 감성은 헤이안 시대의 귀족문화를 대표하였다. 이 미야비적 감성은 일본에서는 풍류보다는 감각적이고 유미적인 측면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일본문화의 미적, 감정적인 면을 대표하였다¹⁰⁾. 헤이안 시대에는 컬러의 배치에서 섬세한 계획이 엿보이며 주제에 따라 주된 색채의 선정을 달리하였다. 사용된 컬러는 글씨체의 돋보임을 위해 강한 색을 피하고 중간의 은은한 색을 선택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 시기 문화의 중심인 귀족들은 짜거나 염색한 문양 옷을 남녀 모두가 몇 겹씩 입고 음악이나 노래로 나날을 보냈다¹¹⁾.

헤이안 시대의 신색들은 홍매(붉은 빛깔의 매화), 치자, 후엽, 맹목, 천충, 이남, 향염(다갈색)등이 있다. 이 색채들은 대부분이 이색들의 교염에 의한 중간색상으로 미묘하고도 어렵듯한 색조들이 많다. 이들 색들은 그 시대 귀족의 취향에 맞게 화려하고 부드럽게 배색되어 장식의 효과를 높여 주었다. 헤이안 시대에는 천황은 황로염, 상황은 적백상, 황태자는 황단, 1위는 십자, 2위·3위는 천충, 4위는 심비, 5위는 천비, 6위는 심록, 7위는 천록, 8위는 썬표, 초위는 천표의 복색제도를 가진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1위에서 4위까지는 흑으로 5위는 적으로 6위는 표로 변화되었다. 서민들은 하인인 경우 주인의 의장에 맞추어 컬러의 화려함이 허락되었으나 주인과의 구분을 위해 직물의 종류를 달리하였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전의 복식제보다 복식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 되었다¹²⁾. 시대 컬러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것은 궁정 여인들의 복장인 여방장속 즉 12히토에였다. 이에 사용된 컬러는 자, 홍, 소방, 이남, 맹황, 황, 향등 여러 가지였고, 이 색채는 표착, 습규, 단의 전체적인 배색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으며, 깃과 소매부리, 자락 등에 아름다운 컬러의 리듬을 습의색이라고도 하였다¹³⁾. 여방장속은 여러

5) 채금석(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꾸밈미학, 한국복식학회 ‘복식’ 54권 3호, p. 114.

6) 음정선(2005), 한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원, p. 15.

7) 미야비: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한 승배를 위한 꾸밈의 미의식

8) 아와레: 귀족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련되고 우아한 미의식

9) 채금석, 위의 논문, p. 115.

10) 채금석, 위의 논문, p. 117.

11) 마즈바라사브로(2000), 동양미술사, 예경, p. 553.

12) 北村哲郎, 이자연역(1999), 일본여성복식사, 까치글방, p. 81.

13) 北村哲郎, 위의 책, p. 74.

겹의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형태면에서는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컬러면으로는 표면색들의 상호배색으로 다양하고도 화려하였다. 당시 장속에 사용된 색채에는 천을 직접 물들인 염색, 경사와 위사의 색으로 짜낸 직색, 겉과 속을 다르게 하여 겹치게 하는 중색의 3종이 있다¹⁴⁾. 이는 표면의 색에 어렴풋이 이면의 색이 영향을 주는 미묘한 색조이다. 중색조는 식물이나 풍물 색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 당시는 봄의 색조는 사쿠라, 여름의 색조는 굴 등으로 계절에 맞추어 옷의 색조를 다르게 하였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중색조 중에서 계절에 의해서 착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130종, 사계를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6종으로 생각되어진다¹⁵⁾.

III. 헤이안 시대 공가여방의 예장의 컬러분석

1. 공가여방 예장 컬러의 일반성

이 시기색의 배색은 유사색상끼리 배색이 많았고, 농담의 차도 적었다. 이러한 컬러배합은 보색의 강한 대비의 화려함과 다른 헤이안시대의 중차적이고 경쾌한 대비에 의한 미묘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의 <표 4>에서 확인한 바로 공통된 컬러로 홍색은 사용되었으며 자색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예장의 컬러 분포

구 분	분류	pastel	vivid	dull	dark
공적인 예장	12히토에				
	모노노구장속				
사적인 예장	고우치키				
	호소나가				

14) 長崎盛憚(1990). 色彩飾の日本史, 淡交社, p. 139.

15) 長崎盛憚, 위의 책, p. 147.

<표 4> 예장의 공통 컬러

구 분	공적인 예장		사적인 예장	
	12히토에	모노노구장속	고우치키	호소나가
공통된 컬러				

나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자색과 홍색은 색감의 우아·고상의 이유로 귀족들에게 애호되어지고 이 시대의 정감을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

결혼 예식복의 경우 거의 백색으로 되어 있으나 겹쳐진 것에 홍색을 기초로 확인할 때 진홍색 의상을 예복 안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시대가 흐른 지금도 완전한 백색 일색이 아닌 진한 홍색이나 홍색을 반드시 곁들여서 경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¹⁶⁾.

공통된 칼라로 사용된 홍색의 범위를 구분한다면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인 예장인 12히토에와 모노노구장속에서 홍색컬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사적인 예장의 홍색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표 6>의 구분된 표를 살펴보면 ‘12히토에’에 나타난 6가지의 컬러가 다음에 나타난

<표 5> 예장별 홍색의 사용 범위

구 분	분 류	나 온 부 분	상세한 명칭
공적인 예장	12히토에	우치키 우치바카마 가라기누 우와기	
	모노노구장속	우치키 우키바카마 우와기	
사적인 예장	고우치키	우치키 우키바카마	
	호소나가	호소나가의 깃부분	

16) 井筒雅風, 앞의책, p. 61

모노노구 장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노노구 장속에 포함되어있는 빛바랜 듯 한 연꽃빛 컬러는 사적인 예장인 고우치키에 그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고우치키의 문양에 조금씩 나타난 보라 컬러는 호소나가에 우치키의 컬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공통 컬러

구 분	공통컬러	이 미 지		
공적예장		12히토에		모노노구장속
				
공적예장과 사적예장		모노노구장속		고우치키
				
사적예장		고우치키		호소나가
				

2. 공가여방 예장 컬러의 차이성

<그림 1>과 <그림 2>는 공적인 예장으로, 궁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정장이다. 여방이 복식 부속품을 모두 착용한 차림을 모노노구의 차림이라고 하는데 12히토에를 입은 위에 다시 히레와 구타이를 착용하고 머리는 묶여 올려 보관을 착용한 차림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그림 3>과 <그림 4>는 사적인 예장의 차림이다.

<공적인 예장>



<그림 1> 12히토에



<그림 2> 모노노구 장속

<사적인 예장>



<그림 3> 고우치키



<그림 4> 호소나가

궁중의 결혼식이 아닌 일반 공가의 결혼식 같은 사적인 일에 입게 되는 옷이었는데 그 색상을 보면 소방과 포도 잎처럼 짙은 홍이나 자색이 가미된 색이며 중심에 백색의 우치키 8장을 겹쳐 입고 밑에 또 짙은 홍색의 히토에와 하카마로서 마무리되어 있다.

사적인 예장은 가사네우치키에 고우치키의 차림이었다. <그림 3>에서 살펴보면 공가여방의 정장은 가라기누, 모를 입는 것이었으나 이 정장 대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히토에, 이쓰쓰기누 위에 고우치키를 겹쳐 입었다. 고우치키는 우와기와 비슷한데 고위직 가족은 이배직물 등의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였고 곁감과 안감의 오메리사이에 나카베라는 색이 다른 천을 넣어서 3중으로 만든 것으로 우치키에 비하여 약간 옷길이가 짧다¹⁷⁾.

젊은 여성의 사적인 예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호소나가>이다. 호소나가에 관해서는 고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길 2폭에 섬이 있는 겹테키 뒷길 자락은 트여 있고 뒤로 길게 끌리도록 되어 있으며 깃은 가라기누처럼 수령인데 접혀있다. 또한 소매는 1폭이며 아테오비로 몸을 매어서 입는 옷이라 생각한다. 결국 호소나가란 가늘고 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¹⁸⁾.

위의<공적인 예장>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적색계열의 컬러들이 현저하게 많이 보이며 중간색의 사용으로 공적인 예장에는 적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황색부터 적색까지 층층이 나타나는 컬러의 조화를 통해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아래<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장의 옷이 겹쳐서 안의 배색과 겉의 배색이 서로

<표 7> 공적인 예장과 사적인 예장의 컬러의 표현 방식

구 분	중첩된 컬러들의 단계적인 전개	대조된 컬러의 배색효과	아래는 진하고 위로 갈수록 연하게 하는 번짐의 효과
공적인 예장			
사적인 예장			-

17) 井筒雅風, 앞의책, p. 53.

18) 井筒雅風, 앞의책, p. 59-61.

어우러져 연결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2>의 모노노구 차림은 번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7>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또한 모노노구 장속에는 적색에 푸른색을 조화시켜 명쾌한 대비에 따른 미묘한 화려함을 주고 있으며 아래의 <표 7>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

공통적으로 공적인 예장인 12히토에와 모노노구 장속은 동일계열의 색의 열고 짙음을 이용한 그라데이션의 효과가 사용되었다. 위의 <표 7>의 공적인 예장의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공적인 예장은 밝은 적색계열의 사용으로 단조로우면서도 밝고 화려한 예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사적인 예장은 어두운 녹색계열의 컬러사용으로 무거우면서도 소박한 예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적인 예장과 사적인 예장 모두 컬러의 전개방식은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사용하였으나 그 전개방식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예장은 안에서 바깥으로 옅은 색부터 진한 색으로 점층적인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주었다면 사적인 예장은 옅은 색과 진한색의 반복으로 불규칙적인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주고 있다.

<표 8>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컬러전개

구 분	이 미 지	컬러의 전개
공적인 예장		
사적인 예장		

공적인 예장은 비비드(vivid)계열의 컬러가 사용되었고 사적인 예장은 덜(dull)한 컬러 혹은 다크(dark)한 컬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인 예장에는 공적인 예장에 사용되었던 녹색 계열의 컬러보다 명도와 채도가 낮은 컬러가 사용되었고, 보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해 포인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밝고 화려한 모습의 공적인 예장과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사적인 예장에서 모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그라데이션 기법에 배색의 효과로 인

19) 井筒雅風, 앞의책, 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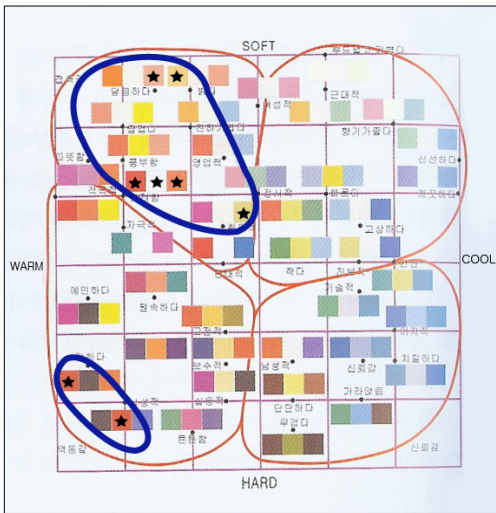
해 경쾌하면서 컬러의 리듬감의 효과를 주었다.

이어 공적인 예장에는 적색계열의 컬러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적인 예장은 공적인 예장과 동일하게 같은 컬러의 적색이 사용되었으나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녹색계열의 컬러의 비중이 증가되었음을 같이 볼 수 있겠다. 이로 인해 공적인 예장에 비해 사적인 예장은 옷차림이 덜 화려하며 소박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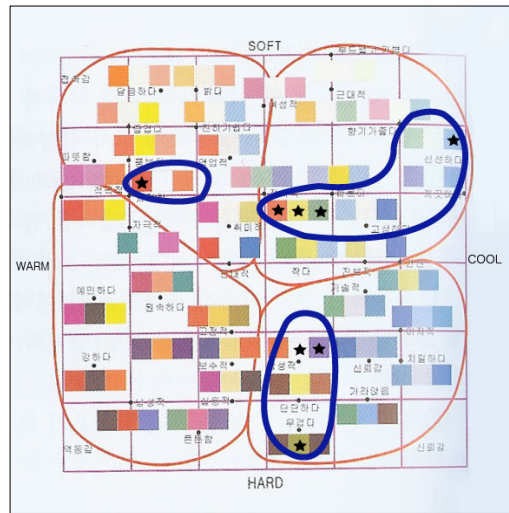
위의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인 예장과 사적인 예장의 컬러를 이용하여 얻어낸 컬러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 9>와 <표 10>은 공적 예장과 사적 예장에 사용된 컬러를 근거로 작성된 컬러 분포도 이다.

먼저 <표 9> 공적인 예장의 컬러분포도를 살펴보면 난색조의 컬러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를 기준으로 아래의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 계열부분에 집중되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사적인 예장은 아래의 <표 10>에서도 보듯이 주로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곳에 분포되어있지만 컬러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9> 공적인 예장의 컬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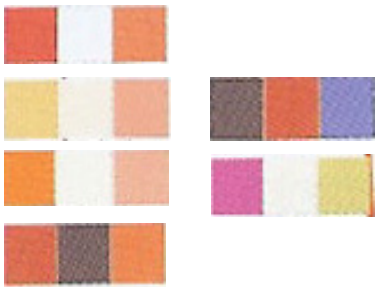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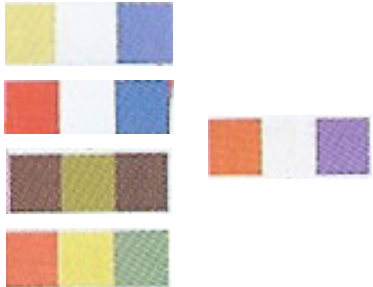
<표 10> 사적인 예장의 컬러분포도²⁰⁾



이로서 사적인 예장은 컬러의 배색이 공적인 예장보다 자유로웠고 다양했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예장과 사적인 예장의 컬러분포도를 기준으로 각각 컬러를 분석해 보면 위의 <표 11>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 공적인 예장은 달콤함/밝음/화

20) 최영훈, 손계중, 유대석 (2004), 색채의 원리와 활용, 미진사, p. 186.

<표 11> 공적인 예장과 사적인 예장 컬러이미지 비교

구 분	컬러 이미지 비교 및 분석	
	공적인 예장	사적인 예장
컬러 추출		
컬러이미지 분석	부드러움/ 따뜻함/ 달콤함/ 밝음/ 화려함/ 풍부함/ 취미적/ 강함/ 남성적/ 역동감	부드러움/ 차가움/ 신선함/ 고상함/ 취미적/ 남성적/ 무거움/ 단단함

려함/풍부함/ 취미적/강함/남성적/역동감의 이미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컬러 칩의 3가지 컬러에 모두 해당되는 이미지는 화려함이었는데 이는 앞서 본 컬러의 점층적인 단계방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화려하고 밝은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적인 예장은 신선함/ 고상함/취미적/남성적/무거움/단단함으로 이미지를 분석해볼 수 있는데 공적인 예장과 마찬가지로 3가지 컬러에 모두 들어맞는 이미지는 취미적/정서적/고상함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공적인 예장에 비해 화려함보다는 정서적이고 무거운 이미지에 사적인 예장의 이미지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귀족 문화의 중심이었던 헤이안 시대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공가여방 예장의 컬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공가여방의 복식은 여러 벌의 홉겹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좌식생활방식과 개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가옥의 특성과 함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교토의 기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의복은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관습, 그리고 생활방식 등의 산물로서 의복의 색채는 이 같은 외적인 요소와 더불어 그 시대의 미적 취향과 감성, 색채에 대한 상징성이 내포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가예방의 복식 중에서 공적예장(궁중예복)과 사적예장(일반인의 예복)을 중심으로 컬러특징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들에서 나타나는 색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첫째,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은 모두 주색으로 홍색을 사용하였으나 의복에서 홍색이 나타난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흔히 일장기로 칭해지는 일본의 국기 안에 놓인 홍색의 원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색의 선호도는 일본인의 색감과는 무관하지 않다. ‘피, 열정, 정열’로 보이는 홍색의 상징성은 공가여방들에게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중도와 힘이 있는 컬러로 사용했으리라 추정된다.

둘째, 예장의 컬러전개방식에 있어서 점층적인 방식의 컬러가 전개되었다면 사적예장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컬러가 전개되었으며 이는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이 지니는 컬러의 제한성에 기인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공적예장은 홍색 위주로 그 색채의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사적예장은 그 색의 사용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컬러 분포도를 통해 공적예장의 배색은 주로 난색조의 화려한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따뜻한 계열부분으로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사적예장은 주로 한색조의 무거운 컬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공적예장과 사적예장의 컬러분포를 바탕으로 컬러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공적예장은 달콤함/밝음/화려함/풍부함/강함/역동감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밝고 화려한 예장의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이에 반해 사적예장은 신선함/고상함/무거움/단단함의 이미지를 보였고 무겁고 절제된 느낌이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여러 겹의 기모노를 겹쳐 입음으로 해서 색조의 그라데이션의 효과와 화려한 색채관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헤이안 시대의 공가여방의 예장은 당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일본풍으로 변모해가면서 컬러를 조화롭게 배색시켜 일본 나름대로의 독특한 미를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정통아풍, 이자연역(2004), 일본 여성복식사, 경춘사.
 진흥섭 역, 久野建외 2人 공저(1978), 日本美術史, 열화당.
 최영훈, 손계중, 유대석(2004), 색채의 원리와 활용, 미진사.
 코이케미츠에, 허은주 옮김(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어문학사.
 파버바렌, 김화중 옮김(1990),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하용득(1992),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2004), 아시아 전통복식, 교문사.
 김미자(1991), 日本의 團領에 대한 研究, 한국복식학회지17호.
 남궁 민지(1999), 일본 전통복식 요소가 현대 일본 패션에 미친 영향-90년대 복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노은영(2001), 동양복식에 나타난 적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박옥련, 이관이(1979), 唐代 女性 服飾 에 관한 考察, 논문집.

배만실(1986), 한국전통색채론, 논총 제51집, 이화여자대학 한국문화연구원.

이경희(1997), 日本 平安시대의 服飾色彩意匠의 特性. 한국복식학회지.

음정선(2005), 한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식에 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원 .

윤자영(2006), 일본 에도시대 색채의 상징성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채금석(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꾸밈미학. 한국복식학회 '복식', 54권 3호.

최윤정(2005), 복식에 활용된 금의 미적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陽忠(2003), 中的唐人服飾 당시(唐詩)에 나타난 당나라 사람들의 복식. 대순사상논총.